

봉 축 법 어

시방법제 모든 곳을 찾아보아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감이 없는 진불은 형상과 자취가 없고, 생멸이 없이 온 누리에 변재하여 있습니다.

실상은 텅 비고 고요하여 볼 수가 없지만 한 티끌 한 빛깔 속에 불멸의 본체는 드러나 있으며, 여러분이 듣고 보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음이 없고 시종이 없는 묘용을 나투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법신을 갖추어 있고, 아름다운 불성을 지닌 미완의 여래입니다. 자성 밖에 진리가 없고 부처가 따로 없으니 찾으면 잃게 되고 구하면 멀어집니다.

마음은 부처를 빛어내는 진리의 원천이요. 번뇌는 중생과 부처를 분별하는 근본입니다.

중생의 마음 마음이 부처의 마음 아님이 없고
일진 일색이 불국토 아님이 없으니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여래의 덕성을 갖춘 미륵의
현신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자비와 나눔을
지닌 문수와 보현입니다.

무진 번뇌 속에 천년의 어둠을 제거하는 광명이
있고, 미혹가운데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기용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엽매임의 틀을 풀어 헤치고,
새들이 나무에 앉아 실상을 노래하니 보고 듣고
깨닫는 이것을 떠나서 부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마(알겠는가?)

불기 2555년 사월 초파일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道林 法傳